

순수비평문학의 선구자

김환태 문학관

<http://art.muju.go.kr> 568-802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봉로 346 Tel 063.320.5636 Fax 063.322.5670

일제 암흑기에 순수문학의 이론 체계를 정립하고 1930~1940년에 크게 활약한 문학평론가이다. 그는 경향문학과 계급주의 비평에 의해 정치성과 사상성으로 경직된 문단에서 순수문학의 옹호자로서 순수비평의 씨앗을 피운 기수로 한국 문학비평사에 우뚝 섰다. 당시 그가 도전했던 문학의 과제는 정치에 예측되는 경향문학에 대한 배격을 소리높여 외친 순수 문학의 기수로 경향문학 배격에 중심을 두었으며, 동시에 당시의 일제 말기에 직접적인 표현은 할 수가 없었지만 장차 우리 문학이 천일 문학 일색으로 변모될 것을 예견하고 그에 대한 경계의 뜻을 담고 있었다. 그는 문학과 예술의 위대성을 확신하고, 정확한 미학의 기준을 말하고 실천함으로써 문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비평문학의 역할을 다했으며, 그가 남긴 문학작품 유산은 오늘날의 민족문학을 확립하는 기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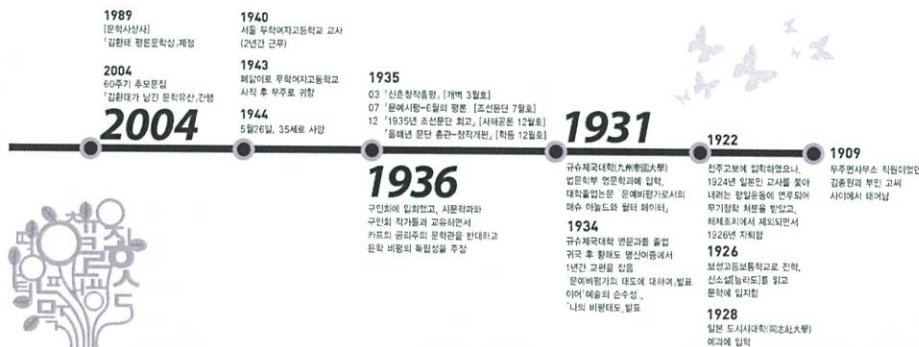
순수비평문학의 선구자

늘인 김 환 태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출생
(1909~1944)



김환태의 연보



나는 상상의 화원에 노는 한 마리 나비이고자 한다. 아폴로의 아이들이 가계사로 가꾸어 형형색색으로 곱게 피워놓은 꽃송이를 찾아 그 미에 흠뻑 취하면 족하다. 그러나 그때의 꿈이 한껏 아름다웠을 때에는 사라지기 쉬운 그 꿈을 말의 실마리로 얹어놓으려는 안타까운 욕망을 가진다. 그리하여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 소위 나의 비평이다. 따라서 나는 작가를 지도한다든가, 창작 방법을 가르쳐준다든가 하는 엄청난 생각을 감히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평의 기준이니 방법이니 하는 것도 또한 나에게서는 소용되지 않는다.

김환태 '평단 전망' 중

김환태 대표적 문학 평론

- 문예비평가의 태도에 대하여
- 예술의 순수성
- 나의 비평태도
- 비평문학의 확립을 위하여
- 여(余)는 예술지상주의자
- 동향없는 문단
- 평단 전망



김환태 선생 일가족 1936년 | 김환태 선생 일가족이 함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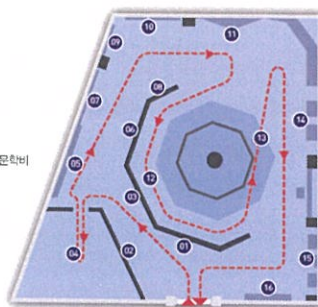
장남 조진, 장녀 진희, 김환태 선생 일가족 1936년 | 김환태 선생 일가족이 함께하고 있다.

김환태 문학관 관람 동선 안내

- ① 김환태의 문학정신
- ② 김환태 선생 어록 및 철학
- ③ 비평의 정의와 단계
- ④ 김환태 선생 영상실
- ⑤ 문예비평가란?
- ⑥ 김환태 선생 연보
- ⑦ 출생과 성장기
- ⑧ 박용철과의 교우
- ⑨ 유학과 귀국 후 활동
- ⑩ 졸업논문과 근대 문학
- ⑪ 구인회
- ⑫ 김환태 문예비평의 의의
- ⑬ 꽃과 나비
- ⑭ 고전문학을 읽는 즐거움
- ⑮ 김환태 평론 문학상
- ⑯ 김환태 문학제와 김환태 문학비

[찾아오시는 길]

서울 - 대전 - 금산 - 무주IC - 무주읍 - 최북미술관 - 김환태문학관
부산 - 대구 - 금산 - 황간IC - 원동 - 무주 - 최북미술관 - 김환태문학관
광주 - 88고속도로 - 거창 - 구천동 - 최북미술관 - 김환태문학관
전주 - 소양IC - 장수IC - 무주IC - 최북미술관 - 김환태문학관
남원 - 정계 - 안성 - 무주IC - 최북미술관 - 김환태문학관
김천 - 우풍 - 무주읍 - 최북미술관 - 김환태문학관
거창 - 구천동 - 무주읍 - 최북미술관 - 김환태문학관





조선후기 화단의 거장



muju 문주군 <http://art.muju.go.kr>



조선후기 화단의 거장 최북 崔北

1712~1786(?) | 조선 후기의 화가

중국 산수의 형세를 그린 그림을 선호하는 당시의 경향을 비판하고 조선의 산수를 그린 진경산수화의 중요성을 강조, 대담하고 파격적인 조형양식을 이루어 조선후기 회화 발전에 이바지 하였다.

[호생관과 칠칠이]

최북의 초명은 식배, 자는 성기(性基) 또는 유용(裕用), 후에 이름을 북(北)으로 고치고 자는 칠칠(七七)이라 했다. 호는 성재(性재)·기암재(奇巖재)이고, 만년에 호생관(虎生館)이라 하였으니 북으로 삼아간다는 뜻이다. 본관은 무주인(無州人)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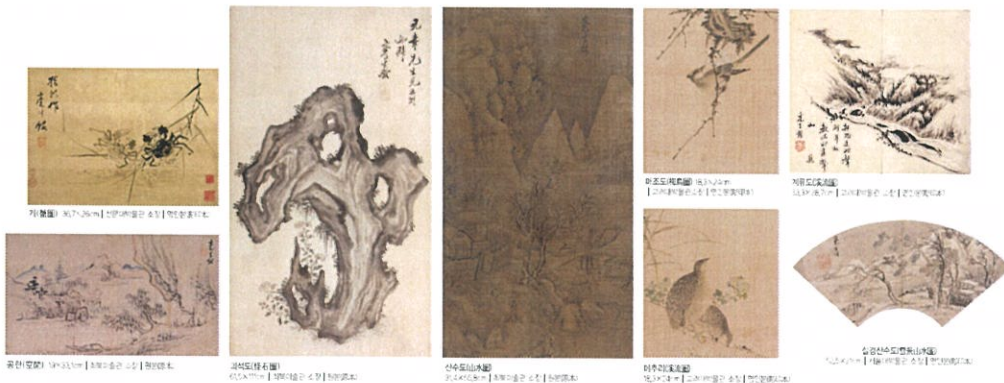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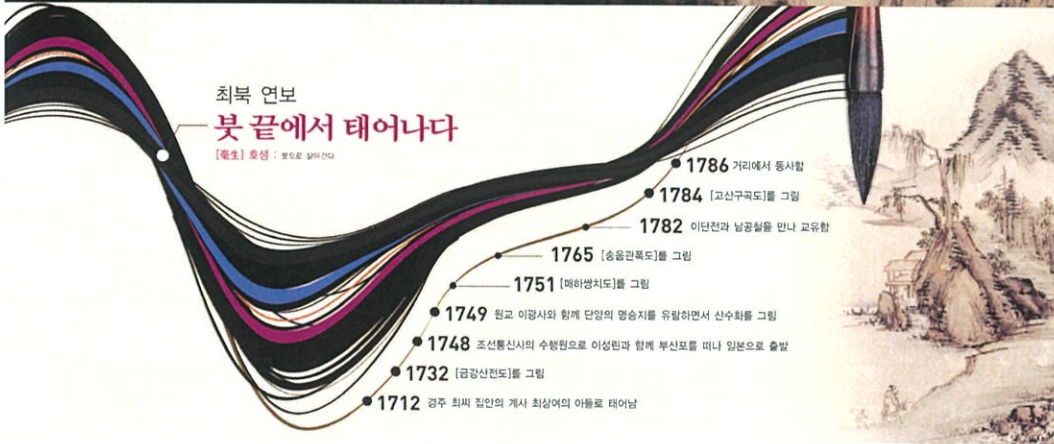
출처 : 근역서화집 / 오세창

[최북의 일화]

심한 술버릇과 기이한 행동으로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금강산 구룡연에서 '천하의 명사가 천하의 명산에서 죽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못속으로 뛰어들었다. 어떤 벼슬아치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다가 최북이 응하지 않자 협박하려 하였으나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나를 저버린다.' 하면서 스스로 한쪽 눈을 찔러 애구가 되었다는 일화는 최북의 기이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최북의 화풍]

최북은 꽃과 물, 새와 짐승, 바위, 고목, 메추라기와 호랑나비를 잘 그렸고 특히 산수와 메추라기를 잘 그려 '최산수(崔山水)', '최순(崔禽)'의 별칭이 있다.



최북미술관 관람 동선 안내

| 관람시간 | 09:00~18:00
| 입장시간 | 관람 마감시간 30분 전까지 입장 가능
| 관람료 | 무료
| 휴관일 | 1월 1일, 매주 월요일, 영결 당일
**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

- 01 조선 후기 화단의 거장-최북
- 02 호생관과 칠칠이
- 03 최북의 생애
- 04 최북 연보
- 05 조선문화의 황금기
- 06 문헌속의 최북
- 07 최북-조선의 눈을 찔러다
- 08 조선회화의 흐름
- 09 최북의 작품세계
- 10 최북의 화풍
- 11 최북 작품 전시 I
- 12 최북 작품 전시 II
- 13 일화로 보는 최북의 재치
- 14 그림속의 화제
- 15 산수화, 문인화, 사군자

